

R&I TRENDS

EU R&I 주간 브리핑

2025.04.23



Contents

▶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- ①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 온라인 고위급 이해관계자 원탁회의 개최 예정(4.29)
- ②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, 독립적인 FP10 촉구(4.22)
- ③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2025 발표 지연 소식에 유럽 대학들 비판(4.17)

▶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- ① (SB펀딩레이더) 녹색 우주 연구에 관한 과제 공고 모음

▶ EU 연구성과

- ① 도로 안전 향상을 위한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 모니터링 도구 개발
- ② 장애인의 문화 생활 참여 권리 보장에 대한 연구

1.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①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 온라인 고위급 이해관계자 원탁회의 개최 예정(4.29)

- 이해관계자 원탁회의에서는 한국과 EU의 엄선된 정부 행정부, 산업 협회, 전문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협력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
 - 동 회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,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, 양자 연구혁신, 사이버보안 및 위협 정보 공유, 5G/6G 및 디지털 연결, 데이터 거버넌스 및 신뢰 기반 데이터 자유 흐름, 디지털 인프라 및 경제 안보, R&D 협력, 디지털 기술 및 인력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
 - 이는 2022년 11월 28일 체결된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올 가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 장관급 협의회의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
 - ※ 디지털 파트너십은 인프라, 기술, 기업의 디지털 전환,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, 디지털 경제 및 무역을 포함한 디지털 이슈 전반에 걸쳐 선진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
- 동 회의는 서울에 있는 주한EU대표부에서 진행되며, Webex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음
 - (일시) 2025년 4월 29일 한국시간 16:00~19:00
 - ※ 참석 등록은 아래 출처 링크 참조

출처 <https://eprd.pl/en/dpa/advancing-the-eu-republic-of-korea-digital-partnership/>

2]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, 독립적인 FP10 촉구[4.22]

- 영국, 스위스 및 뉴질랜드는 EU 집행위원회에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인 FP10의 독립성을 약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
 - EU 회원국, 대학, 기타 연구 기관들을 현재 집행위원회가 FP10을 혁신, 성장, 기술 자율성에 중점을 둔 더 광범위한 '경쟁력 기금'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에 우려하고 있음
 - 이로 인해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, 유럽연구위원회(ERC)와 유럽혁신위원회(EIC)의 자체적인 자금 지원 결정권이 약화되며, FP10의 예산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
 - ※ 자하리에바 연구 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독립적인 FP10과 경쟁력 기금을 모두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, FP10에 대한 전체 계획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
 - 서한에는 경쟁력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, FP10이 기초 연구부터 와해성 혁신에 이르기까지 전체 연구혁신 가치사슬을 지원하기 위해 상향식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
- 세 국가는 현재 운영중인 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약 30%를 준회원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
 - 스위스, 노르웨이, 터키, 이스라엘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오랫동안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, 호라이즌 유럽 이후 뉴질랜드, 캐나다, 한국 등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
 - 하지만 준회원국들은 FP10 계획 수립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권이 없고, 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투표권도 없으며, EU 회원국에 의해 민감한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음
 - 서한은 FP10의 정체성이 희석될 경우, 향후 준회원국 선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

- 각국 과학기술부가 서명한 서한은 “FP10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준회원국들이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할 것”이라고 명시
- 서한은 또한 “명확하게 정의되고 투명한 예산을 갖춘 독립적인 FP10은 국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담 재정 지원을 정당화하고 확보하며, 공공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필수”라며 명확한 예산 책정을 촉구

출처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r-d-funding/fp10/associated-countries-call-stand-alone-fp10>

③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2025 발표 지연 소식에 유럽 대학들 비판(4.17)

- 올해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발표가 몇 주 더 지연됨에 따라 호라이즌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기관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됨
 - 대학들은 워크프로그램 2025의 채택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며, 관심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
 - 집행위원회는 보통 연구자들이 지원 사업, 범위 및 예산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새해 전에 워크프로그램을 발표해왔음
 - 그러나 올해는 지난 12월 집행위원회 새로운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승인 절차가 지연됨
- 집행위원회는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를 4월 25일로 연기, 문서는 5월 초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
 - 첫 번째 공모는 5월에 시작될 예정이며, 관련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나, 몇 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워크프로그램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
 - 기존 새로운 집행위원 임명에 따른 지연은 예견되었으나, 이에 추가로 성평등계획(GEP) 요건 변경에 대한 논의로 인해 절차가 더욱 지연되었음

- 유럽대학협회(EUA)의 정책 분석가인 코지로그는 “계획된 발표일에 너무 가까워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지연된 일정에 불필요한 복잡성이 더해졌다”라고 지적
- 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초가을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
 - 코지로그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누적되어 겹치면 “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을 지원하는 대학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”이라고 말하며, 집행위원회가 향후 정책 주기 전환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
 - 유럽연구중심대학협회(Guild)의 정책 책임자인 시사이트는 워크프로그램이 5월 초에 사전 발표될 계획이나, 이것이 마감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
 - 시사이트는 집행위가 지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함에 따라 여러 시범 사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것이 이번 발표 지연의 한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임
 - 한편, 시사이트는 “워크프로그램 발표가 지연될수록 대학들이 이러한 새로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줄어들 것”이라고 경고하며, “집행위는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며, 이는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망한 제안서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”라고 전함
- 현재 워크프로그램 초안이 일부 공개되었으나, 선례에 따르면 최종본은 초안과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, 늦게 공개될수록 공고 발표와 마감일 사이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
 - 크로아티아 리예카대학의 연구혁신책임자 마로는 “워크프로그램이 매우 상세한 지시사항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대학들은 준비 작업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. (지연에 대한)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질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져 EU R&I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”라고 지적

- 또한 마로는 “마감일이 겹치고 사전 공지가 부족한 여러 공모가 동시에 시작되면 대학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며, 때로는 유망한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”라고 경고
- 유럽기술대학연합(EuroTech) 브뤼셀 사무소장인 슈나이더는 “워크프로그램이 공모가 시작되는 5월에 공개되는 것은 (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) 어려움을 준다”라고 말함
- 슈나이더는 초안이 이미 여러차례 수정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, 이는 연구원과 연구 지원 부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고 언급
- 마로에 따르면 향후 공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는 전략적인 기획이나 국제 협력 또한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

출처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fnw/horizon-europe/universities-decry-horizon-europe-delays>

2.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1 [SB편딩레이더] 녹색 우주 연구에 관한 과제 공고 모음

- 유럽우주국(ESA)는 지난 3월말 2040전략을 발표,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우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주 역량 강화에 있음
 - 유럽은 유럽식 방식으로 우주에 접근하고자 함. 즉, 유럽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우주를 운영하고 파트너들과 협력하며, 새롭게 발사되는 모든 로켓이 미래의 삶을 오염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자 함
 - 이러한 접근방식은 우주 자체에도 적용되며, 이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궤도 환경을 파편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음
 - EU와 ESA는 이미 여러 공동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으며,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은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새로운 ESA 전략을 통해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
 - 변화하는 현재 유럽의 지정학적 환경은 유럽이 더 큰 통합, 효율성, 그리고 효과성을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으며, 노하우와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ESA가 EU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유럽이 우주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EU의 입장은 오는 6월 25일 제안될 EU우주 법안에 명시될 예정
- 현재 ESA의 환경 연구 분야 우주 관련 연구 과제 공모 현황은 다음과 같음:

- [Space Supporting Environmental Claims](#)
- [Green Hydrogen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](#)
- [Space for Urban and Peri-urban Agriculture](#)

- [Integrated digital solutions for the energy sector](#)
- [Maritime Decarbonisation](#)
- [Space for Sustainable, Connected and Liveable Cities](#)

○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2025 초안에 따른 주요 환경 보호 관련 우주 연구 공고는 다음과 같음:

- 클러스터4를 통한 해당 관련 공모는 6월 3일 시작될 예정이며, 집행위는 관련 사업 설명회를 [5월 13일~14일 개최](#)할 예정

- 해양 쓰레기 탐지 및 선박 오염원 정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구 관측 서비스 - 과제당 500만 유로
-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 진화: 향후 센티넬 및 기타 위성의 재분석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처리 방법 - 과제당 1,000만 유로
-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 진화: 토양-식생 대기 모델링 개선 및 대기 성분 데이터 동화 - 과제당 300만 유로
- 코페르티수크 인위적 탄소배출 모니터링 및 검증 지원 역량: 화재가 식생 및 관련 탄소 플럭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 개발 - 과제당 300만 유로
- 코페르니쿠스 해양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진화: 새롭고 혁신적인 해양 데이터 동화 기술 - 과제당 500만 유로

출처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r-d-funding/funding-radar-weeks-round-green-space-research-calls>

3. EU 연구성과

① 도로 안전 향상을 위한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 모니터링 도구 개발

- PANACEA 프로젝트는 24시간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도로 안전 향상을 목표로 함
 - 2023년 EU 통계에 따르면, 유럽에서 20,4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(인구 백만 명당 46명 해당)했으며, 많은 사고가 음주, 주의 산만, 피로 운전 등 운전자의 부적절한 상태로 인해 발생. 상당수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사고
 - 스웨덴 국립 도로교통연구소(VTI)의 Anund는 운전 적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
 - PANACEA 프로젝트의 혁신적 솔루션은 피로, 스트레스, 알코올·약물 사용, 주의 산만 등 운전자의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함
 - Anund는 PANACEA가 “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향상해 궁극적으로 충돌 사고를 줄이고 유럽이 2030년까지 도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”라고 전함
- 프로젝트는 차량 내외부 센서와 모니터를 활용하여 사전 및 주행 중에 운전자의 신체적, 인지적, 생리적 운전 적합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
 - 클라우드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피로 설문, 대화형 스트레스 관리, 사용자 친화적 보고서 등을 제공
 - 대상 사용자 상당수가 모니터링을 꺼려해서 테스트 초기부터 사용자 참여를 유도해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
 - 스웨덴에서는 자동 서틀에 기술이 적용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,

“기술이 운전자의 체력과 도로에서의 전반적인 안전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”라고 Anund는 언급

-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, 택시 및 택배 기사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택시 기사들은 기술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, 택배 기사들은 70%가 실제로 피로 알림 후 행동 변화 의지를 보이는 등 상당한 개선 가능성을 보여줌
 - Anund는 “이러한 파일럿 연구를 통해 PANACEA의 솔루션은 운전자 유형과 운전 환경에 따라 수용도가 다양하고 따라서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”라고 말함
- 테스트를 통해 수집된 피드백은 솔루션을 개선하고, 정책 제안 및 새로운 ‘운전 적합성’ 기준 정의에 기여함
- Anund는 “PANACEA 솔루션은 운전자와 일반 대중 모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럽 전역의 전문 운전자를 위해 더 안전한 도로와 건강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”라고 결론 내림

PANACEA 프로젝트

- 기간 : 2021.05.01. ~ 2024.10.31.
- 예산 : 약 3,498,466.25 유로 (EU 3,498,466.25 유로 지원)
- 주관 : STATENS VAG- OCH TRANSPORTFORSKNINGSINSTITUT (스웨덴)

출처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57684-assessing-one-s-fitness-to-drive>

2 장애인 문화 생활 참여 권리 보장에 대한 연구

-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DANCING 프로젝트는 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EU의 문화 다양성의 교차점을 조사해 옴
 - 2020년부터 출범한 동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트렌토 및 로베레토 현대 미술관과 EU 회복 기금 iNEST와 협력하며, 2024년 10월 접근성과 포용성 있는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접근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
 - 세미나에서는 접근성과 포용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역량이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, 다양한 분야의 관점 및 기업 및 협회 등과의 직접적 협력도 필요함을 강조
 - DANCING 프로젝트 총괄기관인 아일랜드 Ryan 교수는 세미나가 학제 간 연구와 국제 협업의 우수 사례임을 보여준다고 언급
 - DANCING의 수석 연구자 Ferri 교수는 세미나에서 장애인의 문화 접근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, 프로젝트가 장애인 권리와 문화기관의 포용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
 - Ferri 교수는 박사후 연구원 Leahy와 '장벽 해체와 장애인의 문화 참여권 증진'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으며, 이 책은 UN 장애인권리 협약 제30조를 바탕으로 문화 참여의 장벽을 다룸
 - DANCING 프로젝트의 주요 결론은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보장이 전체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임

DANCING 프로젝트

- 기간 : 2020.09.01. ~ 2025.08.31.
- 예산 : 약 1,999,337.00 유로 (EU 1,999,337.00 유로 지원)
- 주관 :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MAYNOOTH (아일랜드)

출처

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57686-showing-that-culture-for-all-means-well-being-for-all>